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25.(수) 11:00 < 10.26.(목) 조간 > 배포 2023. 10. 25.(수)

배터리용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캐나다 간 협력 다짐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캐나다 간 협력 방안 논의
-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무탄소연합(CFA)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0.25.(수) 방한 중인 캐나다 사절단 대표 마크 샨(Mark Schaan)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북미 배터리 시장 거점으로 캐나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에 따라, 배터리·소재 분야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양국이 함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캐나다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북미 최대의 핵심광물 생산국이며, 캐나다산 핵심광물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산지 요건 충족이 쉬운 만큼,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높은 협력 잠재력이 기대된다.

한편,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세계(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에 캐나다 측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오인봉 (044-203-56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